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12/12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신 12:5-11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7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9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며, 그분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셔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면,

11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요 4:21-24

2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22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3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벰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미혹시켰다(왕상 12:25-30).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도록 정하셨다. 여로보암은 열 지파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들의 합법적인 왕에게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면서, 경배의 중심지 두 곳을 세웠다. 오늘날의 교파들 또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편리라는 핑계를 사용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변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합일과 하나가 유지되도록 거룩한 땅에 오직 하나의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깨뜨렸다(신 12:2-18). 이것은 커다란 죄가 되었고, 이 때문에 백성이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8 장, 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변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궤도에서 빛나간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마귀적인 방식을 취하려는 구실로 하나님의 경배를 사용할 때마다 그 사람은 변절에 빠지게 된다. 비록 로마 가톨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명목상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우상에 경배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여로보암이 우상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신들을 보십시오!"(왕상 12:28)라고 말했을 때 하였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여로보암은 마치 "이것이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실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다. 그러므로 변절은 거짓되고 마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변절로 가득하다. 변절이 만연해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사실상 우상들에 경배하고 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03 장, 1395-1396 쪽)

여로보암은 산당에 신전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왕상 12:31).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도록 정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지내는 명절과 비슷하게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덟째 달의 열닷셋날을 명절로 정하였다(왕상 12:32 상). 그는 백성에게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여로보암은 벰엘에 있는 제단에서 자신이 만든 송아지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뻔엘에 두었다(왕상 12:32-33 상).

변절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다(왕상 12:33 하).

여로보암의 변절에 관한 위의 다섯 가지 항목은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다.

열왕기상 13 장 1 절부터 32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뻔엘에 만들어 놓은 제단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 심판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하였다(1-10 절).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신언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길을 취했고, 사자에게 찢겼다(11-32 절).

열왕기상 14 장 1 절부터 18 절까지에는 여로보암의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아히야의 예언이 있다. 여로보암은 아들인 아비아에 관하여 좋은 소식을 얻고자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신언자 아히야에게 보냈다(1-5 절). 그러나 신언자 아히야는 좋은 소식을 주지 않았고, 변절이라는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치 똥을 치워 버리듯 그 집을 치워 버리실 것이라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해주었다(6-18 절).

여로보암의 생애는 하나님의 엄중한 벌로 끝이 났다(왕상 14:19-20 상).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8 장, 64-6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8 장,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10-11 장

12/13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1:6

6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2:6

6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계 5:10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0:6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2:3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출 19:2-6

2 그들은 르비딴에서 나아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쪽에 진을 쳤다.

3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4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5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6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줄 말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여로보암은 북부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부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자 우상숭배가 들어왔다. 여로보암은 분열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뻔엘과 단에 우상을 세웠다(왕상 12:29).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또 하나의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다(26-27 절). ...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왕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경쟁하려는 의도로 경배의 또 다른 중심지에 우상들을 세웠다. 이 절들은 이 우상들의 근원이 그의 야심이었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3 장, 37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 원칙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분열들은 이기심과 야심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제국을 갖고자 하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한다. ...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유일한 장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었다. 지성소가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이 장소에 세워졌다. 그런데도 야심이 있고 이기적이며 자기만을 관심하는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은 또 다른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다. 그러한 경배의 중심지는 사실상 여로보암의 야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의 많은 인도자들이 경배의 중심지들을 세웠다. 그러한 중심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중심지들은 자신의 제국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참된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의 창설자들은 오늘날의 여로보암들이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여로보암들'에 의해 세워진 경배의 중심지들은 사실상 야심의 중심지들이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곳들에서 '우상들'이 발견될 수 있다....

열왕기상 12 장 26 절부터 30 절까지에 나타난 원칙에 의하면, 많은 기독교 단체에는 사람을 매혹하고 붙들기 위해 세워진 '우상들'이 있다. 이런 '우상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시나이산에서의 아론의 사례에 따라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그 금송아지들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여로보암을 따랐을 것이고 그와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빛 비춤 아래 있다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우상들은 사람들을 그

단체들로 이끌어 들인 다음, 그 단체들 안에 붙들어 놓는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3 장, 371-372 쪽)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의도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직접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19 장 6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출 32:1-6)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레위 지파만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선택되었다(출 32:25-29, 신 33:8-10).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간 계급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강력한 제도가 되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 원래의 의도로 돌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계 1:6, 5:10, 벰전 2:5, 9). 그러나 초대 교회의 끝 무렵에, 심지어 1 세기에 니골라당이 중간 계급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했다. 이것이 ... 모든 믿는 이의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손상한다. ...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는 성직자도 평신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중간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계 2:6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1-3 장

12/14 수요일

아침의 누림**신 12:2**

2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겨 온 곳은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든 그 모든 곳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합니다.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 2:9-11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빌 3:7-8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4:20

20 이제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을 헐어 버렸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헐어 버렸던 그것들이 다시 돌아왔다. 산당들(왕상 11:6-8, 12:31)과 무성한 나무들과 기념 기둥들과 아세라상들과 우상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났다. 사실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하나라는 터 위에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솔로몬이 앞장서서 또다시 산당들을 세웠다. ... 솔로몬은 모세가 백성에게 헐어 버리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들은 음행 및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솔로몬이 산당들을 세운 것은 특히 그가 정욕에 빠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가 산당들을 세운 것은 '자신의 모든 이방인 아내를 위한 것이었다(11:8).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8 장, 4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산당을 세우는 것은 결국 분열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산당들에 내재된 의미는 분열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도록 하나 안에 보존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하나를 보존하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으로 오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나 산당들은 이 유일한 곳을 대신하고 대치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분열이 하나를 대치함을 의미한다.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은 하나를 의미하는 반면에, 산당들은 분열을 의미한다. 온갖 형태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산당들을 세운 것과 관련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온갖 형태의 악은 분열과 관련된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 두 왕 곧 선한 왕인 솔로몬과 악한 왕인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산당들을 세운 것이 정욕에 빠진 것과 관련되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후궁을 거느렸다. 솔로몬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산당들을 세웠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왕상 11:4).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산당들을 세운 것이 야심과 관련되었다(왕상 12:26-32) 여로보암은 자신의 제국을 고수하기를 원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산당들의 집을 지었다(왕상 12:31).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세울 결심을 한 원인은 그의 야심이었다. 얼마나 끔찍한 악이 산당들과 연관되어 있는가! 산당들은 정욕과 야심과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다. 산당들은 분열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분열이 이 악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분열이 정욕과 야심과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이 옳지 않은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므로 분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분열은 정욕과 야심과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산당은 높이 솟은 곳으로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어떤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산당이 어떤 것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원칙적으로,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산당, 곧 모든 분열은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높아진 것들이 악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들은 매우 좋은 것일 수 있으며, 성경 연구나 성경 강의와 같은 것까지도 포함할지 모른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 연구가 분열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경 연구를 위한 모임까지도 산당이 되고,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8 장, 450-4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8-9 장

12/15 목요일**아침의 누림****롬 15:4**

4 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골 3:10-17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서 산당들이 세워진 것에 관한 기록은 그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기록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롬 15:4).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8 장, 4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모든 분열은 어떤 것을 높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 연구가 무언가를 높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로 읽기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에서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높여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높인다면, 그것조차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높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주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산당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수준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들은 하나라는 터를 심각하게 손상했다. 만일 이 '산당들'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구약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장소에서 드린 경배와 제물과 향만이 진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든 산당은 비록 그곳에서 진정한 희생 제물들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라는 터에 손상을 입힌다. 그런 '산당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정욕과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용된다.

이방 백성들이 우상에 경배했던 모든 장소는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든(신 12:2) 그 모든 곳을 없애 버려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그들의 신상들을 찢어 버려야 했다. 더욱이 그들은 우상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 버려야 했다. 처리해야 할 주된 세 가지 것은 장소와 형상과 이름이었다. 이것은 좋은 땅에서 이방 신에 경배하던 모든 경배의 중심지가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음을 계시한다.

하나라는 터는 한 도시에 한 교회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총명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한 곳을 선택하셨으며,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신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외의 모든 장소와 그리스도의 이름 외의 모든 이름을 없애 버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없애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 아마 여러분은 어느 특정 교파의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질과 성미와 습관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한 새사람의 하나를 손상하는 모든 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이다. 골로새서 3 장 11 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장소를 철저히 헐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 모든 것을 반드시 헐어 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교회생활 안에서 좋은 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주님의 집에 심길 것이고 자랄 것이며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합당한 길이다. 이것이 곧 하나라는 터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8 장, 457-459 쪽, 4 장, 380 쪽, 5 장, 415-4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4-5 장

12/16 **금요일**아침의 누림**엡 4:3-4**

3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 17:21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엡 4:1-2, 5-6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 17:22-23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요소는 …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인데, 이 하나는 '그 영의 하나'(엡 4:3)라고 불린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 장에서 기도하셨던 하나,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연합된 하나이다.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인격을 지칭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데(요 17:6, 11),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심지어 이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서 진리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통한 것이다(요 17:14-21). 이 하나는 최종적으로 신성한 영광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요 17:22-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생명의 영에 의해 신성한 생명인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이러한 하나가 그들의 영 안으로 분배되었다. (주의 회복에 관한 간략한 소개, 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이다. 신약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으로서 각 도시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행 8:1), 안디옥에 있는 교회(행 13: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롬 16:1), 고린도에 있는 교회(고전 1:2) 그리고 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있는 일곱 교회(계 1:4, 11)를 본다. 한 교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각 도시는 그 교회의 경계이며, 그 교회의 지방적인 터이다. 이처럼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는 … 여러 교파들이 서로 분열된 것처럼, 교회가 서로 다른 터가 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제들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표현하는 하나(oneness)의 영의 실재이다. … 그 영의 실재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다(요일 5:6, 요 16:13).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질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이 영을 통해 지방이라는 터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 영에 의해 교회의 진정한 터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된다(엡 4:3-6)....

위에서 정의한 교회의 터는 실행에 있어서 지방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어떠한 분열도 없이 교회의 참된 하나를 지켜준다(엡 4:3).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존재와 기능을 위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하다. 각 지방에 교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실행에 있어서 존재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할 길이 없어진다. 사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지방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한 몸의 많은 표현들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표현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존재할 수 있지만, 표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건축은 지방적으로 그 교회 자체를 건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고전 14:3),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엡 4:12). 사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건축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건축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실질적으로 건축될 수 있겠는가? (주의 회복에 관한 간략한 소개, 42-45, 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1 장

12/17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시 23:6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겠습니다.

시 84:1-5

1 오, 만군의 여호와님! 주님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제 혼이 여호와와 그의 뜰을 사모하다가 참으로

지치기까지 하오니 제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3 오, 만군의 여호와님!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주님의 두 단에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새끼 칠 동지를 찾았습니다.

4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5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 곧 기독교가 상실했던 하나가 회복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이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이와 반대로 분열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로 돌아올 때 경건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 한 면으로 우리는 아직 매우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풍성이 분명 그분의 회복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하나라는 유일한 터가 여기에 있고, 모든 영적인 풍성이 이 터에 포함되어 있다. 경건한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풍성은 하나라는 터 위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9장 4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생활 안에 들어온 후 우리 속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영성에 대한 열망이 자연히 일어났다. ... 우리가 합당한 터인 하나라는 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투명하게 열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라는 터 위에 내려진 주님의 축복 때문이다. 하나라는 터의 회복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증거 또한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증거와 관계되는 모든 것, 곧 제단과 제물들과 성전과 명절과 풍성한 누림이 돌아왔다. 바빌론에서는 경건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었다. 비록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주님의 증거가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거룩함이나 승리나 영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었다. 이러한 미덕들은 그들이 단지 성전과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 올밭랐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해 올바름으로써 '하나' 안에 머무를 때는 거룩해지거나 승리하거나 영적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미덕들을 지녔다. 거룩하고 영적이고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합당한 '하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를 모든 긍정적인 속성들과 미덕들에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 있고, 모든 긍정적인 속성들과 미덕들을 누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향상된다. 그러나 분열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또다시 악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이 '하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는 그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의 근원과 하나의 요소와 하나의 본질을 본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단체적인 사람을 본다.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도 한 하나님과 한 사람이 있다. 더욱이 교회 안에는

한 영과 한 새사람이 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보좌, 하나의 길, 하나의 강, 하나의 나무라는 특징을 지닌 한 성 안에 유일한 삼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부분적인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크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하나, 곧 전체적인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에 대한 이상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란다. 만일 우리가 그 전체적인 '하나'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모든 분열의 세균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각종 분열에서 구출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9장, 474 쪽, 3장, 375-378 쪽, 2장, 351-3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2권, 그 영과 몸, 19-20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3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4-15 장

12/18 주일

아침의 누림

골 1:15-20, 26-28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6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골 2:2-3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2022. 12. 12 ~ 2022. 12. 16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1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4장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1장

찬송: 831 (英) 성도가 함께 거할 때 (中:600)

1 성도가 함께 거할 때 교회의 하나- 누려 성도들 안에 성령이 이 하나 두셨-다네 성령에게서 왔으니 성령의 하나-일세 온 성도의 같은 믿음 하나의 뿌리-일세.

2 귀하고 동일한 믿음 온 성도 함께- 가져 주님과 구속의 일이 곧 구성 성분-일세 그 안에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일세 다 함께 얻은 믿음에 온 교회 존재-하네.

3 주 그리스도 소유인 하나인 우주- 교회 각 지방에서 하나로 주님을 표현-하네 한 하나님과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과 한 침례 한 몸 한 소망 모두가 하나-일세.

4 이 하나는 곧 교회가 서야 할 터가- 되니 온 성도들의 하나를 이루는 그 터-일세 교회가 참된 하나를 실지로 실행-하네 각지의 교회 출현은 다 이 터 위에- 있네.

5 성령의 참된 하나를 힘써서 지키-면서 한 터 위에서 한 몸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 마음속의 갈망이 이로써 실현-되고 주 영원한 뜻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